

태양광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탄력

전북대, OCI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스템 기증받아 1억4천여만원 상당... 공대 학생 실습·연구 활용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OCI(대표이사 이우현)로부터 1억4천여만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OCI 김용일 상무는 최근 전북대 정병호 공과대학장과 국경수 전기공학과의 장을 만나 이 시스템을 기증했다. OCI는 전북대와 상호 협력을 위해 전북대 부속공정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인 15kW PV와 3.6kWh ESS 통합 시스템을 설치했다.

또한 최근 교내 계통연계 및 자체 알고리즘 호환성을 확보해 공대 7호관(전기공학과)에서 주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설비를 확충했다. 이를 통해 전북대 공대는 학생들의 교육 실습과 태양광 관련 분야 연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병호 학장은 "글로벌 에너지·화학기업인 OCI에서 공과대학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를 기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이 설비를 활용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OCI 상무는 "기타되는 현물이 전북대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기관의 신뢰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밝



전북대학교가 OCI로부터 1억4천여만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기증받았다.

했다. 한편, OCI 주식회사는 1969년에 설립하였으며 기초 화학제품에서부터 태양광 산업, 바이오산업까지 5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화학제품 생산업체로서 'Global Leading Green Energy and Chemical Company'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제15대 신임총장 前 한국생산성본부회장 홍순직 박사 선임

대학구성원과의 소통 통한 '취업 명문 대학' 포부 밝혀

전주비전대학교는 제15대 신임총장에 前 한국생산성본부회장을 역임한 홍순직 박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20년 동안 산업자원부 부이사관으로 근무했다. 전주비전대학교 홍순직 총장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대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 구성원과의 소통과 역량을 모아서 취업 명문 대학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홍순직 총장은 99년에 삼성경제연구소 정무로 임사해 삼성자동차(주) 전무, 삼성SDI(주) 부사장 겸 삼성미래전략위원회 부사장, 제13대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등을 지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특수·통합교육 교육복지 이해 연수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4일 도내 모든 유치원 원장과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14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2019 유치원장, 학교장 통합교육과 교육복지 이해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9 유치원장, 학교장 통합교육과 교육복지 이해 연수는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학교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중 진행된다.

그동안 교육복지 이해를 위한 학교장 연수는 교육복지 사업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교육소의로부터 벗어나고 교육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전북 교육복지의 지향점을 반영, 올해부터는 연수 대상을 도내 모든 학교의 확대했다.

이날 학교장 연수를 시작으로 오는 12일에는 도내 모든 유치원 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22일부터는 전라북도 교육연수원 주관으로 초·중등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연수가 이뤄진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통합교육중점학교인 '정다운학교'를 운영했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전주서중학교(특수학급 2학급) 손주현 교장의 특강과 지적장애 기타리스트 김지희씨와 그 어머니가 전하는 공감 토크 콘서트로 진행된다. 또 더불어 교육복지 중점학교인 익산초등학교 강지영 교장의 교육복지 운영 사례도 공유했다.

지적장애 기타리스트 김지희씨의 어머니 이순도씨는 "관심 있게 아이를 보살핀 교사의 정성, 통합학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예체능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2일 전주대학교 인터넷마케팅 프로젝트수업에 참여하는 11개 기업이 장학금 660만원을 전달했다.

대학과 기업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모델 구축

전주대 인터넷마케팅 프로젝트수업 참여기업, 장학금 660만원 기탁

전주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2일 인터넷마케팅 프로젝트수업(PBL)에 참여한 11개 기업이 장학금 66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은 이호인 총장과, 양병선 부총장, 경영대학장 이상우 교수, 박성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11개 참여기업 대표를 플러스건설 나춘균 대표와 코엔에프 임종복 대표가 직접 장학금을 전달했다.

참여 기업들은 1학기 동안 전주대 학생들과 매칭 되어 인터넷마케팅, 온

라인 광고 콘텐츠 개발 등 기업 현안을 해결하게 되며, 장학금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프로젝트수업(PBL)은 대학과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모델이다"라며,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한 기업들과 학생들이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대 인터넷마케팅 프로젝트수업은 마케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

으로 기업과 협업체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참여기업과 취업 연계 및 취업률 향상에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전주대 경영학과 프로젝트수업(PBL)에는 전북지역 우수 기업인 (주)플러스건설, (사)전북기독교서시 화사업추진협의회, (주)코엔에프, (주)뉴로사이언스러닝, (유)나눔마켓브레드, (주)도서출판밀스톤, (주)지람연구소, (주)산중정비기술학원, (주)왕의간식푸드, 행복연구소, 파이토티타가 참여했다.

/장은성 기자

신뢰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도교육청, 민원행정·제도개선 계획 마련... 15개 세부과제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뢰와 감동을 주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2019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및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4대 중점과제로 삼아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원스톱 민원서비스센터 홈페이지를 개선기로 했다. 연결 횟수가 많은 전화번호, 주요 상담자료 위주로 초기화면을 재구성해 민원인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인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 Talk Talk 고객지원실'은 전라북도교육청만의 차별화된 민원서비스 전략이다.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통한 접근성을 더하고, 고객지원실 주변에 북카페 운영 및 미술작품 전시를 통하여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보유 원문 DB자료 열람·활용도 가능하다.

또한 민원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민원인 개정정보 보호를 강화해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각 부서에 안내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대학혁신지원 사업단 발대식 개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3일 대강당에서 대학혁신지원 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및 교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으며, 전 학부·과 및 행정부서 교직원들의 높은 참여율과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또한 사업 구성원 및 관계자들에게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사업의 비전과 목적을 이해토록 하였으며, 호원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인 '글로벌

HOPE형 인재양성 선도대학'과 혁신지원 사업단의 교육 목표인 '실용중심 창의융합 인재양성+'이라는 목표 의식을 함께 공유했다.

이만중 기획처장(법경활정학부 교수)은 "대학혁신지원 사업단 발대식과 함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사명과 책무를 다 할 것"이라며, "실무진과 공정한 사업운영을 다짐하는 청렴서약 결의대회를 갖고 앞으로 청렴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경쟁력 강화와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